

남해읍성의 공간구성과 축조기법에 관한 연구

권 순 강

(재,우리문화재연구원 건축고고팀장)

이 호 열

(부산대 건축학부 교수)

주제어 : 조선시대, 남해읍성, 지적원도, 공간구성, 축조기법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남해읍성이 위치한 南海郡은 제주도·거제·진도 다음으로 큰 섬(면적: 35,766km²)으로 麗末鮮初에는 倭寇의 침범이 잦았고 내륙과 떨어져 늘 치안이 불안했다.¹⁾

이런 지정학적 이유로 남해읍성은 1439(세종 21)년에 남해군의 중동부에 위치한 남해읍 죽산리(현 북변리, 남변리, 서변리 일원)에 축조되었으나, 體城과 주요 城內施設, 壇廟 등은 도시화로 훼손 또는 멸실된 상태이다. 일부 개발되지 않은 구역에 체성이 잔존해 있으며, 성터에 지은 저층 건축물의 하부에 체성의 기초부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 읍성 관련시설 중에는 南海郷校만 현존하며, 나머지는 그 위치만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남해읍성에 대해서는 邑誌類²⁾와 문화유적분포지도³⁾에서 연혁과 성내시설, 體城의 규모 등이 간략히 언급이 되어 있고 심도 있는 연구는 역사지리학 분야⁴⁾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2008년과 2009년에 두 차례에 걸쳐 체성의 부분적인 발굴조사가 실시되어 잔존상황과 축조수법 등이 확인되었다⁵⁾.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발굴조사성과 및 문헌기록, 古地圖, 口傳, 地籍原圖 등을 토대로 1439년에 축조한 남해읍성의 축성연혁, 읍성내 공간구성 및 구체적인 축조기법을 규명하는데 있다. 그간 建築史學에서의 읍성 연구는 공간구성상의 특성을 고찰하는데 치중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남해읍성의 최근 발굴성과를 토대로 15세기 초 沿海地域 읍성의 공간구조 및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 이호열 samlhy@pusan.ac.kr

1) 남해는 麗末鮮初에 왜구의 침범이 잦은 지역으로 수차례 행정구역이 개편되었으며, 해상교통의 동서 왕래 결절지로 고려·조선시대의 漕運路 상에 위치했다. 또한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와 하동군 금산면 노량리 사이의 露梁은 정유재란 때 조선수군과 일본 수군이 마지막 해전을 벌인 곳이기도 하다.

2) 남해읍지편찬위원회, 『慶尙南道 南海郡 南海邑誌』, 씨티플랜, 경남, 2008. pp.377~381.

3)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南海郡, 『文化遺蹟分布地圖-南海郡-』, 나래종합인쇄사, 경남, pp.127~128, 2004.

4) 최원석, 『경상도 邑治 경관의 역사지리학적 복원에 관한 연구: 南海邑을 사례로』, 문화역사지리 제16권 제3호, 2004.

5-a) (재)우리문화재연구원, 『남해 도시계획도로 건설 구간 내 유적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약보고서』, 2008.

5-b) (재)우리문화재연구원, 『남해읍성 주변 건물신축부지 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2009.

축조기법, 축성공정 등을 구체적으로 고찰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1-2. 연구 범위와 방법

남해읍성의 연혁을 고찰하기 위해 먼저 朝鮮王朝實錄⁶⁾과 각종 邑誌類 및 古地圖 등을 분석했다. 남해읍성의 공간구성분석은 먼저 지적원도⁷⁾(1915)상의 체성과 해자 추정구간을 연결하고, 이를 CAD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도면화한 후 이를 현재의 지적도와 수치지형도에 겹쳐 남해읍성의 전체 범위와 규모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읍성내 官衙와 公廨 등의 위치는 지적도상의 필지별 地目과 지목의 크기, 소유자 변화를 기초로 고지도, 선행연구, 구전 등을 참고하여 고찰했다. 남해읍성의 축조기법은 (재)우리문화재연구원의 발굴조사성과(각주 5-a, 5-b 참조)를 토대로 지적원도, 문헌기록 등을 종합하여 고찰했다.

2. 연혁과 공간구성

2-1. 연혁

남해읍성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세종실록에 보인다. 세종실록에 “慶尙道 長鬢 迎日 南海 金海 築城”(사료.3)이라 한 것으로 보아 1439(세종21)년 11월에 남해읍성이 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남해읍성이 축성되기 20여 년 전인 1418년 기록(사료.1)과 1420년 기록(사료.2)에 남해의 토지가 비옥하여 백성들이 농사를 경작하니 木柵과 土城을 축조하여 倭寇의 침입에 대비한 기록이 보인다. 이를 통해 남해읍성 축조 이전에도 木柵과 土城을 쌓아 왜구의 침범에 대비했음을 알 수 있다.

6) <http://sillok.history.go.kr> 사이트에서 검색하였다.

7)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 소장의 마이크로필름 복사.(경상남도 남해읍 북변리, 서변리, 남변리)

사료.1 二島(南海, 巨濟)之地, 膏腴可耕宜置木柵, 以庇農民. 上從之, 仍命待豐年設木柵(世宗實錄:1418(세종 즉위년 8월 19일))

사료.2 遂命三島(南海, 巨濟, 昌善)中田多處 作木柵 或築土城 聽民持兵器入耕 晝則候望應變 夜則入城固守 又令附近各梁兵船守護 其田少處 禁民入耕(世宗實錄:1420(세종 2년 윤1월 27일))

사료.3 慶尙道 長鬢 迎日 南海 金海 築城(世宗實錄:1439(세종 21년 11월 20일))

남해읍성의 축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1469년에 편찬된 慶尙道續撰地理誌⁸⁾(사료.4)에 보인다. 이 문헌에는 남해읍성의 축성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남해읍성이 본래 古縣里 火金峴山城⁹⁾에 있었으나 땅이 좁고 경사져 위험하여 己未年(1439)에 죽산리로 이배(移排)했다는 내용과 함께 죽산리에 새로 쌓은 남해읍성의 규모와 제원에 대해 자세히 밝혀 놓았다.

사료.4 邑城 縣北古縣里 火金峴山城 壬子(壬午?)年 石築周廻一千七百四十尺高十尺廣十一尺地窄傾危 己未年竹山里邑城移排石築(慶尙道續撰地理誌¹⁰⁾)

전술한 세종실록과 慶尙道續撰地理誌의 구체적인 축성기록을 통해 남해읍성이 1439년에 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후기부터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읍지류 등은 남해읍성이 1427년, 1437년(正統 2), 1459년(세조 5)에 각각 축성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표 1)

8) 『세종실록지리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1469년(예종 1)에 왕명으로 편찬, 같은 해 춘추관에서 완성했다.

9) 이 화금현산성은 고현면 도마리 화금현산에 있는 古縣山城으로 추정하고 있다.(南海郡·慶南文化財研究院, 『南海大局山城(南門 및 蓮池)』, 世宗文化社, 부산, p.40, 2000)

10) 韓國學韓文獻研究所編, 『國地理叢書 全國地理志壹』, 서울亞細亞文化社刊, 서울, p.784, 1983.

[표 1] 문헌별 축성시기

축성시기	文獻資料
1427년(세종9)	朝鮮輿輿勝覽(사료.17)
1437년(正統2년)	南海縣邑誌(사료.14)
1439년(세종21)	世宗實錄(사료.3), 慶尙道續撰地理誌(사료.4).
1459년(세조5)	大東地志(사료.13), 增補文獻備考(사료.15), 嶺南誌(사료.16), 晉州鎮管誌南海縣.(사료.18)

이들 문헌기록은 내용이 단편적이고, 축성 배경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상으로 볼 때 남해읍성의 축조시기는 구체적인 축조 배경이 기술되어 있고, 읍성 축조시기와 가장 근접된 시기에 편찬되고 사료로서 신뢰도가 높은 세종실록과 경상도속찬지리지의 기록이 읍지류보다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1439년(세종 21)에 축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외 읍지류에 보이는 읍성의 축조기록은 문헌의 기록을 검토하지 않고 전제하면서 나타난 오기이거나, 이배 이전에 대한 기록, 修築한 시기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1439년에 축조한 남해읍성이 법식에 따라 축조한 것인지는 다음의 기록을 통해 고찰할 수 있다. 당시 忠淸·慶尙道 각 고을의 읍성은法式을 따라 쌓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남해읍성은 그나마 규식에 가깝게 축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1451년(문종 1) 9월 충청·전라·경상도 都體察使 鄭芑이 문종에게 “慶州府邑城, 金海府邑城, 昌原府內廂城, 昆陽郡邑城, 機張縣邑城, 東萊縣邑城, 固城縣邑城, 南海縣邑城, 河東縣邑城 등 9개 읍성은 그대로 들 곳에 해당한다(사료.5)”고 보고한 것으로 보아 남해읍성은 읍성의 규식에 부합하도록 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료.5 忠淸、全羅、慶尙道都體察使鄭芑啓: “慶尙、忠淸道各官城子基, 初不依法

築之, 故竝皆不合規式。然其中仍舊各官, 及期改築各官, 隨後可築各官, 與退築各官等磨勦, 謹具以聞。仍舊...慶州府邑城.. 金海府邑城...昌原府內廂城...昆陽郡邑城... 機張縣邑城...東萊縣邑城...固城縣邑城... 南海縣邑城...河東縣邑城...(文宗實錄:1451 (문종 1년 9월 5일))

그 후 1486년(성종 17)에 강릉 대도호부사 曹淑沂가 “南海縣 읍성은 성이 대단히 협소하고 또 샘이 없으니, 냇물에 걸쳐 널찍하게 물려 쌓는 것이 바람직하다”(사료.6)고 한 기록은 보이거나 이대로 실행에 옮겨졌는지는 기록이 없어 확인 할 수 없다. 최근의 발굴조사결과로 추정해 볼 때 냇물1)에 걸쳐 널찍하게 물려 쌓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료.6 南海縣 海中絶島 城甚狹小又無水泉 願待有年 跨川水廣闊退築(成宗실록:1486(성종 17년 1월 16일))

남해읍성은 1439년에 初築 후 두 차례에 걸쳐 개축되었는데, 제1차 개축은 임진왜란으로 파손된 남해읍성을 개축한 것이며, 제2차 개축은 1757년에 현령 趙世述12)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실은 南海縣邑誌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사료.7)

사료.7...設邑之初始築而當壬辰倭亂爲倭奴所破靖亂之後改築至于今一百六十餘年之間體城間多陵夷女堞亦皆破今丁丑九月日縣令趙世述募民改築完...(南海縣邑誌13)

1차 개축 후 160여년이 경과하여 체성과 여장이 무너진 것을 1757년(丁丑) 9월에 현령 趙世述이 개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8년과

11) 냇물은 남해읍의 남쪽에 있는 평리천을 칭한 것으로 보인다.

12) 남해현령 재직기간:1756년 2월 16일~1758년 3월 6일(주 2의 문헌, p.8)

13) 韓國學資料院, 『慶尙南道 輿誌集成』, 「南海縣邑誌」, p.322, 1963.

2009년에 (재)우리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한 발굴조사에서 읍성의 축성과 개축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유물이나 고고학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당시 읍성 개축이 무너진 체성 상부와 여장을 대상으로 수축한 것이어서 기저부에서 개축과 관련된 유구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다 광역의 읍성지를 조사하면 초축 및 개축시기와 관련있는 유구 및 유물이 발굴될 가능성도 높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조선시대 남해의 읍치는 당초 고려리 화급현산성에 최초의 읍성이 있었으나 땅이 좁고 경사진 것이 문제가 되어 1439년(세종 21)에 지금의 위치에 남해읍성을 새롭게 축성했음을 알 수 있다. 1439년에 읍성을 본격적으로 축조하기 이전인 1418년과 1420년에도 이미 木柵과 土城을 쌓아 倭寇 침입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으로 보아 왜구에 대한 방비를 목적으로 축조한 남해읍성은 規式과 法式을 충실히 따라 쌓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1451년(문종 1) 都體察使 鄭芑의 보고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남해읍성은 1439년에 初築된 후 17세기 초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파손된 것을 개축했으며, 그 후 1757년에도 현령 조세술이 다시 고쳐 쌓은 것으로 보인다.

2-2. 입지

1) 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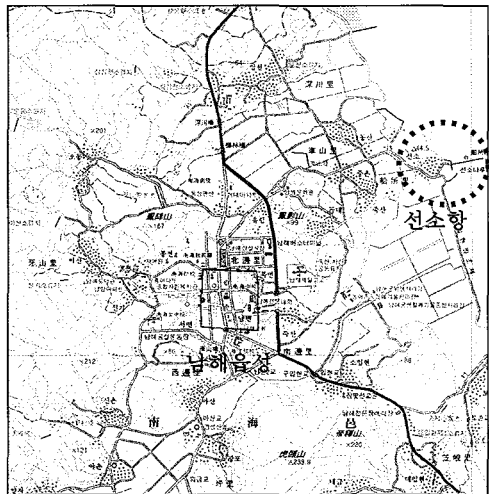
남해읍성은 남해의 중앙부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서쪽에는 남해의 주산인 望雲山(783m)이 있고, 동쪽에는 강진해(고지도에서는 江池海로 표기되어 있다)와 접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지형은 西高東底形의 지형을 이루고 있다. 이 지형은 해안기후단구면에¹⁴⁾ 해당하며, 남해

14) 해면변동단구와 다른 발달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해안기후단구면은 대량의 쇄설성 물질로 구성되며 산록대에서 해안까지 연속되어 있는 퇴적평탄지가 후빙기 해안축역사연구 제18권 5호 통권66호 2009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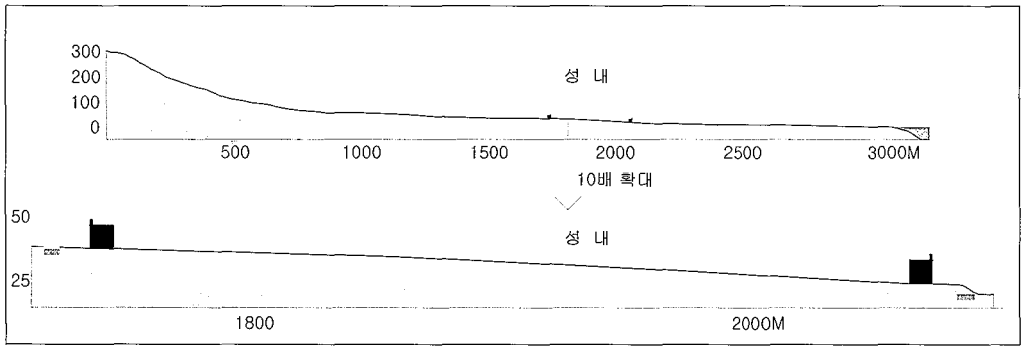
<그림 1> 남해읍성의 위치와 주변 환경(위성사진)

읍성은 이 단구면에 위에 축조된 평지성이다. (그림 1) 단애면 하부에 해자를 설치하고, 그 상부에 체성을 축조하여 입지 선정에서부터 지형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2~4) 서북쪽에는 鳳降山(167m)과 동북쪽에는 鳳影山(99m)이 있고, 남쪽에는 남산과 虎頭山(239m) 낮은 산들이 읍성을 마치 분지처럼 감싼 형태이다. 동쪽에도 작은 독립 구릉인 당산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열려져 완만한



<그림 2> 남해읍성과 선소항(○)의 위치(1/25,000)

진이 완료된 후, 현 해안의 침식작용에 의해 단구화되었기 때문에 해안단구로 부르고 있다. 조사결과 해면변동단구면으로 추정되는 해성역층이 확인되지 않고, 아원력에서 아각력의 하천퇴적층 역층이 확인되어 필자는 해수면변동단구면으로 추정하고 있다.(양재혁, 『해수면변동에 따른 남해안의 지형발달과정과 해안기후단구』, 『한국지형학회지』, 서울, p.105, 2008)



<그림 3> 남해읍성 동서지형 단면도 및 상세

경사지를 이루고 있다. 읍성은 산들이 분지처럼 감싼 곳의 중앙에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그림 1, 4)

이러한 입지조건은 풍수이론의 적용과 읍성에 정주하는 사람들의 생활에는 유용했을지는 모르나 유사시 성내시설과 방어 병력이 적에게 노출되기 쉬운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곳에 읍성을 축조한 것은 방어 기능 보다는 도시로서 인간의 定住 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그림 4> 남해읍성의 위치(위성사진)

2) 船所港과 남해읍성

남해는 外海와 內海를 구분하는 경계에 있는 큰 섬으로, 내해는 고대로부터 해상교통로 사용되었다.15) 북쪽에는 노량해협과 진주만(사

천만)이 있으며, 동쪽에는 강진해가 있는데, 이 강진해는 삼천포와 창선사이의 해협, 창선과 남해사이의 지족해협이 만나고 있다. 서쪽에는 광양만·여수만 있어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임을 알 수 있다.(그림 1, 6-4·6)

남해읍성에서 북동쪽으로 약 2km지점에는 강진해와 접해 작은 항구인 船所가 있다. 남해읍성과 가장 가까이 위치하는 선소는 육지와 남해를 海路로 연결하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항구였다. 조선시대에 선소에는 戰船과 兵船이 각각 1척, 代伺候船 2척, 代將 1명, 監官 2명 등 水軍이 주둔했다.16)(그림 5) 이 선소는 창선도의 좌우에 있는 해협이 한눈에 조망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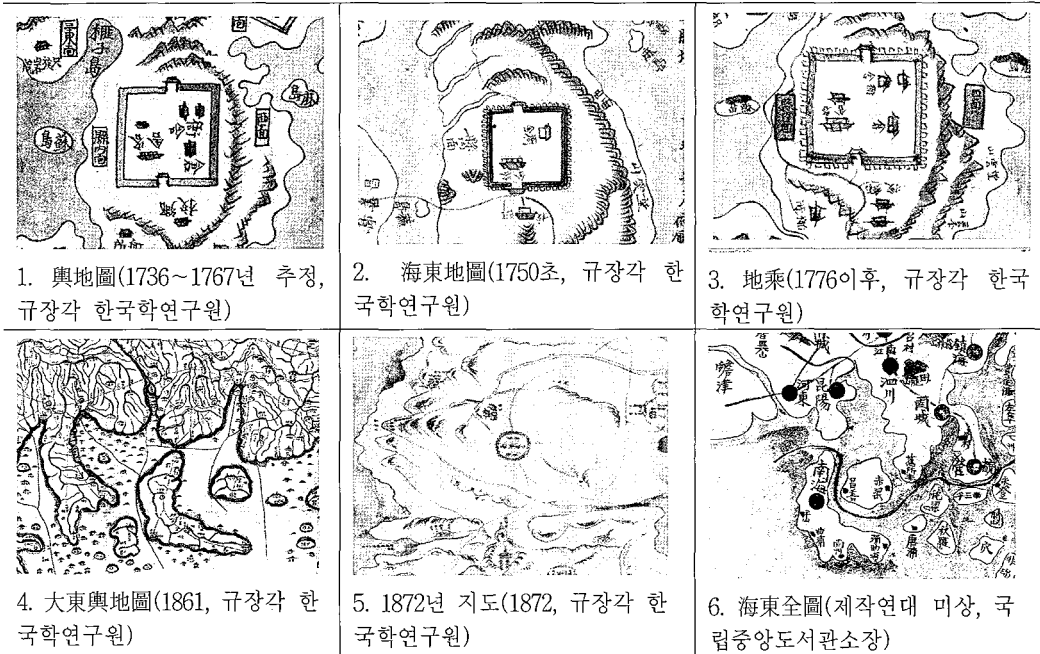


<그림 5> 선소항에서 본 남해읍성(북동→남서)

대량으로 확인되어 최종규는 낙랑군과 倭地 간 즉 남북 왕래의 교통로로 중앙해당하며, 남해안의 東西來往의 중요한 結節點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崔鍾圭, 『勒島遺跡의 構造』, 『勒島 貝塚V』, 서경문화사, 서울, p.114, 2006.

15) 남해의 동쪽에 위치한 창선과 사천사이에 녹도라는 작은 섬이 있는데, 이 섬에서 청동기시대 말기의 유적이

16) 경상대학교 도서관소장, 『晉州鎮管誌』, B15BB-진 77, 關防條



<그림 6> 고지도에 묘사된 남해읍성

군사상의 요지로 한때 왜구가 倭城을 쌓고 주둔하기도 했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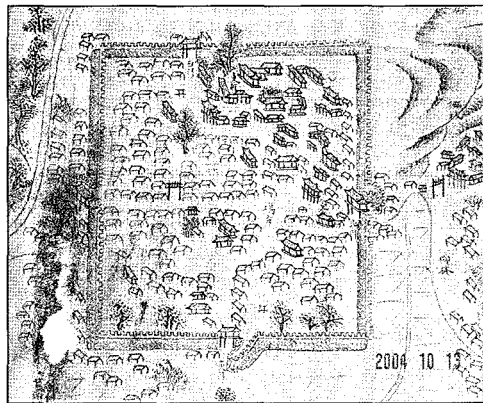
이처럼 선소는 1973년 남해대교가 건설되기 전까지 남해와 육지를 연결하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항구로,¹⁸⁾(그림 1, 5) 남해읍성과는 입지 및 공간적, 군사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선소는 도서지방과 연해에 접한 읍성에서 볼 수 있는 매우 특징적인 요소로 해상교통의 통제 및 군사상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2-3. 공간구성 및 가로계획

1) 공해 및 주요 시설의 위치

읍성관리과 관련이 있는 시설은 크게 公廡, 단묘, 창고 세 가지가 있으며, 그 밖에 향교와 남해의 항구인 船所가 있다. 公廡는 임금을 상

징하고, 중앙관리들의 숙소로 사용하는 客舍, 현감이 집무를 보는 衙舍, 현감을 보좌하는 鄉廳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표 2)



<그림 7> 남해고지도(우측이 북쪽)

(1) 객사

객사인 淸海館에는 籌邊樓라는 부속 누각이 있었다. 고지도와 지적원도를 비교하면 객사는 북변리 158번지로 현재 읍사무소 부지이다. 남해군청 소장 남해고지도¹⁹⁾(이하 '남해고지도'

17) 天南臺, 禦邊所도 있었다.(주 13의 문헌, p.322, 1963)

18) 주 2의 문헌, p.126

19) 남해고지도는 20C초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 남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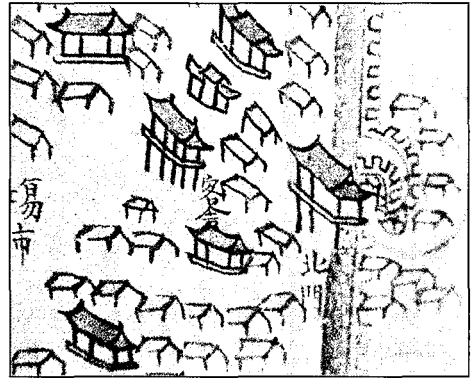
[표 2] 남해읍성관련 주요 공해 및 시설

	시설명	위치 및 추정위치	비고
公廨	淸海館	북변리 158번지	客舍(읍사무소)
	籌邊樓	在客舍東	今無
	振旅軒	서변리 24번지	東軒(현군청)
	鄉廳	남변리 407번지	
	軍官廳, 將官廳, 人吏廳, 縣司, 田制所, 訓導廳, 通引廳, 使令廳.		
	官奴廳	俱在城內	
倉庫	承化堂, 鄉射堂		(d)
	홍살문	서변리 9, 56번지 사이	
	總倉	在郡西. 在城內西(d). 북변리 160번지	남해초등학교
	大同倉	在城內南(d)	大同庫
	軍餉倉	在郡南, 在城內南(d)	
	賑恤倉	在城內東(d)	
	官廳庫	在城內東(d)	
	水陸軍器	庫統營倉	
	陸軍器庫	在城內北(d)	
	別餉倉	俱在郡東五里船所	城外
壇廟(祠廟)	漕倉	在郡北露梁津屬厲山倉	城外
	社稷壇	在府郡西二里 在縣南一里(b) 在縣西二里(d)	
	城隍堂	在郡南一里 在縣北十九里(a) 在縣南一里(b)	舊在郡北十九里
	厲壇	在郡北二里 在郡北二里(b) 在縣北二里(d)	
學校	鄉校	在郡北二里 在縣北一里(a,d)	小說位
船所		在郡東五里	(d)
場市		북변리 125번지	김광세병원
井泉		서변동 36-2번지 및 13번지(e). 북변동 96-2번지(e)	
池		북변리 170번지	남해초등학교

범례:()가 없는 문헌-嶠南誌, (a)-新增東國輿地勝覽, (b)-南海縣邑誌, (c)-朝鮮輿輿勝覽, (d)-晉州鎮管誌南海 (e)-南海邑誌

고지도는 주 4문헌에서 재인용.

라 함)에서 객사를 비교적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객사 正廳인 청해관은 ‘山’자형 지붕으로 표현하고 있다. 정면에는 솟을삼문형식의 내삼문과, 중층 문루, 그리고 서쪽에 3동의 부속건물이 묘사되어 있다.(그림 7, 8) 즉 정문인 2층 문루와 내삼문을 지나 정청인 청해관에 이르는 동선으로 주건물이 남북 축선상에 배치되어 있다. 주변루는 남해고지도의 객사 동편 단층 기와집으로 추정되며, 지적원도에 그 위치를 비정하면 149번지로 추정된다.(그림 8, 10)



<그림 8> 남해고지도(객사부분 확대)

(2) 동헌

동헌인 振旅軒은 남해고지도와 지적원도를 비교해 볼 때 서변리 24번지에 비정된다. 남해고지도를 토대로 동헌의 배치현황을 유추해보면, 동헌은 정문인 중층 문루와, 내삼문, 정당



<그림 9> 남해고지도(동헌부분 확대)

인 진여현, 그리고 용도 불명의 부속건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문과 내삼문 그리고 동헌은 축선상에 배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동헌은 남향하고 있다. 동헌의 출입동선은 정문에 해당하는 중층 문루와 내삼문을 거쳐 동헌에는 이르는 공간구조를 보이며, 동향한 내삼문과 축선 상에 배치되지 않는 등 진입동선에 변화가 많은 것이 객사와 다른 점이다.(그림 9, 10)

(3) 향청

鄉廳은 문헌에는 보이나 그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기록이 없어 비정하기 어렵다. 남해고지도에 場市와 남문사이에 기와집이 3~4채가 독립적으로 집합해 있는 구역이 鄉廳으로 추정된다. 지적원도상에 비정하면 남변리 407번지(국유지, 지목 '塿')로 추정되며, 면적이 넓고 객사, 동헌과는 떨어져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그림 7, 10)

(4) 壇廟 및 校院

토지신과 오곡신을 모신 사직단은 현의 서쪽 2리로 되어 있는데, 남해고지도에서는 남산의 서쪽에 묘사하고 있다. 제사를 받지 못하는 無主孤魂의 제사를 지내는 厲壇은 문헌에 읍성 북2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표 2), 남해고지도에는 읍성 북쪽에 위치하는 향교의 서편에 '官齋'로 표기되어 있다.(그림 7) 남해향교는 小說位로 현의 북쪽 1~2리 지점에 위치했다. 이밖에 성황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성황당은 본래 읍성의 북쪽 19리에 있던 것을 읍성 남쪽 1리로 이군했다.(표 2, 그림 7) 이처럼 남해읍성의 사직단과 여단 및 향교 등은 조선 시대의 일반적인 도시 구성원리로 적용된 '左廟右社'의 원리를 충실히 따라 배치되었다.

(5) 창고, 시장, 급배수시설

稅穀과 무기를 보관하는 창고도 그 수가 많은데, 그 연혁이 전하지 않아 위치와 규모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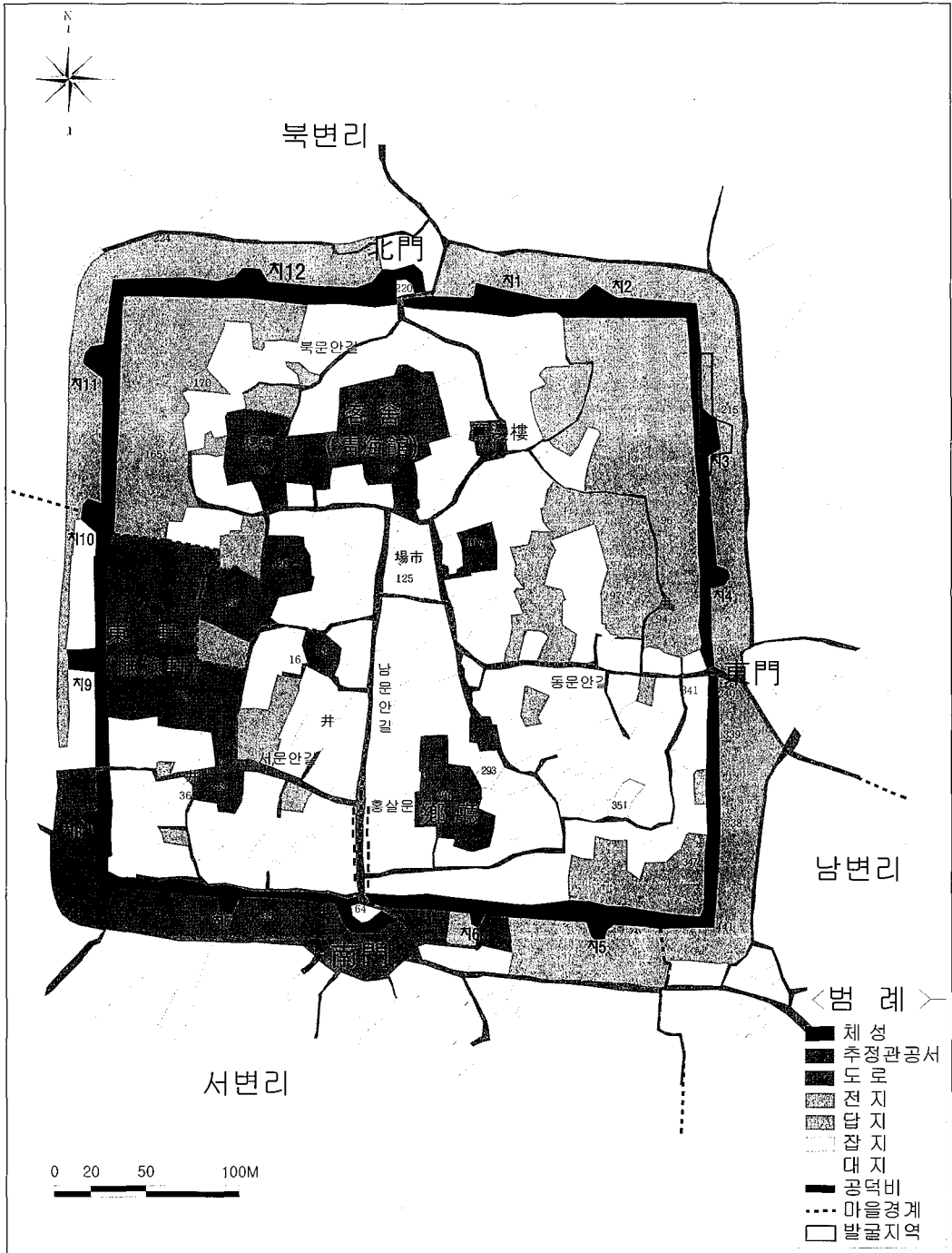
알 수 없다. 穗倉만은 고지도인 地乘에서 穗倉으로 輿地圖에서는 倉으로 각각 기록하고 있으며, 그 위치는 동헌과 아사가 직교하는 연장선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동헌과 객사와 함께 표기되어 중요한 창고였던 것으로 추측된다.(그림 6-3, 7, 9) 이 고지도를 바탕으로 남해고지도를 살펴보면 삼문을 포함하여 6채의 건물들이 ㅍ자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수창을 묘사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지적원도와 비교하여 보면 북변리 160번지로 추정되는데, 그 이유는 고지도에서 확인된 수창으로 추정되는 위치에 지목이 '塿'이고, 국유지가 있기 때문이다.(그림 10)

[표 3] 문헌별 급배수시설

文獻資料	井	泉	연못	渠
文宗實錄	-	3	-	1
慶尙道續撰地理誌 新增東國輿地勝覽 東國輿地志, 海東地 圖, 大東地志 增補文 獻備, 朝鮮輿輿勝覽, 晉州鎮管誌南海縣	1	5	-	-
南海縣邑誌, 嶠南誌	1	5	1	-
南海古地圖	3	-	-	-

시장은 남해고지도에서는 객사 앞에 '場市'로 표기하고 있고, 지적원도로 보면 북변리에 위치한 지목이 '雜'인 125번지에 해당한다. 시장은 객사 앞에 둔 형식으로 開市日은 4일과 9일이다.(그림 7, 10)

급배수시설은 우물(井)과 샘(泉) 연못과 도랑으로 구성된다.(표 3) 문헌에서 우물(井)은 모두 1기로 기록되어 있고, 샘(泉)은 문중실록에서만 3기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모두 5기로 기록되어 있다. 남해고지도에 '井'으로 표기한 것이 동문 근처와 서문 근처 그리고 홍살문과 동헌 사이 세 곳에 있어 그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남해신문²⁰⁾에 수록된 기



<그림 10> 지적원도(1915년 제작)에서 체성과 공해위치 추정도

사와 면담조사21)를 통해 우물의 위치를 추정 할 수 있다.

이 우물은 서변리 36번지와 49번지 사이,

20) 남해신문, 「남해읍성, 그 역사와 현장을 찾아서」 (주 2의 문헌, p.379~380에서 재인용, 2008)

21) 최영민, 현 72세, 남해읍 남산동 거주.

북변리 97번지와 94번지 사이에 위치하고 현 재도 남아 있지만, 홍살문과 동헌사이에 위치한 우물은 멸실되어 구전으로만 전한다. 나머지 우물과 샘에 대해서는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

문헌에는 연못과 도랑이 각각 1기씩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연못은 남해고지도에서는 체성서북쪽 우각부내 타원형의 연못이 묘사되어 있다. 이를 지적원도와 비교하면 성내 유일하게 북변리 170번지가 지목이 '畚'로 표기되어 있어 위치가 고지도와 부합함으로 연지로 추정된다.(그림 7, 10) 또한 창고와 연지의 밀접한 관계에서도 알 수 있다. 도랑에 관한 위치는 고지도와 지적원도에서 확인할 수 없어 추정이 불가능하다.

2) 읍성내 가로계획

조선시대에 들어와 지방도시의 중심인 邑治는 국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중요한 행정거점으로 획일적으로 재편되었다.²²⁾ 남해읍성 역시 이러한 획일화된 계획하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조선초 읍성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분석하기 위해 공간구조를 분석하였다.

남해읍성의 주도로는 남북도로이며, 남문과 북문에서 성외 도로와 연결된다. 외부와 연결되는 남문과 북문을 기준으로 볼 때 남해읍성은 2개의 교통로를 가진 읍성에 속하며²³⁾, 남북 성문은 城內로 출입하는 주출입구가 되고 여기에 응성이 부설된 형태이다.

성내시설 중 가장 위계가 높은 客舍는 읍성의 남북 중심 축선상에서 북쪽으로 치우쳐 위치하며, 지형적으로도 城內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자리 잡았다. 그리고 객사와 南門을

연결하는 남문안길²⁴⁾을 두고, 주위에는 객사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環形 도로를 개설하였다.

객사의 주출입구를 남문안길과 직선상에 두지 않고 길의 끝 부분에서 동으로 꺾어 들어가는 '┌'모양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남문에서 객사에 이르는 동선을 복원해 보면 좁은 남문을 통과하여, 역대 수령들의 功德을 기린 공덕비를 지나 길 끝에 있는 객사의 지붕을 보며 진입하게 된다. 이 도로는 약간의 구배가 있어 상승감을 주었을 것이고, 도로 끝에 이르러 우측으로 난 길을 통하여 객사 외삼문을 보며 좌측을 돌아 진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東軒은 읍성의 서측 성벽 중앙부에 위치하며 객사 쪽에서 보면 남서쪽에 해당한다. 지형적으로 보면 동서 단면상 높은 지대에 위치한다. 서문과 남문안길을 연결하는 서문안길은 남문안길과 T자의 三交叉路 형식으로 교차하며, 남해고지도에 이 지점에 홍살문이 그려져 있다. 서문이 서측 성벽의 중앙부에 있지 않고 남쪽으로 많이 치우쳐 위치하는 것은 동헌이 서측 성벽 중앙부에 위치하여 그곳에 성문을 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동문안길은 동문과 객사를 바로 연결하는 도로로 남문안길을 통하여 객사로 진입할 수도 있지만 남문안길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객사로 연결하는 것이 특징이 있다. 서문안길이 만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三交叉路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읍성내 주요 간선로에 접한 동헌, 객사 등의 주요 건물로는 간선도로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했으나 간선로 이면에 있는 건축물로는 4~5호를 한 단위로 막다른 골목(Cul-de-sac)이 발달해 있다.

전체적인 가로계획을 보면 먼저 객사 외곽에 환형도로를 내고 이 도로를 중심으로 방사형의 支線路가 발달해 있다. 그리고 남문안길

22) 김동욱, 『조선시대 건축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서울, p.36, 1999.

23) 白寅吉, 『朝鮮時代 邑城의 立地에 따른 特性에 관한 연구』, 서울대석논, p.48, 1989.

24) 도로의 이름이 문헌에 확인되지 않아 주민들이 부르고 있는 명칭을 차용하였다.(주 21의 제보자)

의 끝에는 객사가 위치하여 노단경(Terminal Vista)을 형성하였으며, 주요 도로는 T자의 삼교차로 형식으로 접속되었으며, 간선도로에서 이면에는 4~5호를 단위로 막다른 골목이 발달했다. 그리고 田地는 체성을 따라 외곽에 분포되어 있고, 대지는 주로 읍성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유사시에 전지를 쉽게 변경하여 방어력을 정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방어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체성 남북 주위에는 소규모로 분할된 대지가 발달해 있는데, 이는 조선 후기에 상업이 발달하면서 상가들이 남문 밖에 조성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그림 10)

3. 체성의 규모와 부속시설

3-1. 체성의 형태와 규모

남해읍성의 형태는 완전히 잔존하지 않아 그 형태와 제원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문헌, 고지도, 지적원도 등을 통해 평면형태와 제원을 추정할 수 있다. 고지도 중 '1872년 지도'만 읍성을 원형으로 표시하고 있고, 나머지 지도에서는 정사각형으로 묘사하고 있다.(그림 6) 지적원도상의 체성의 지목이 '城'으로 표기되어 있어 체성의 형태와 규모를 추정할 수 있으며, 그 둘레는 표 4와 같다. 체성의 평면 형태는 정사각형이며, 한 변의 길이는 평균 약 330m이다.

문헌상의 둘레는 문종실록과 해동지도에서

[표 4] 지적원도상에서 남해읍성 둘레

측정 위치	체성 중심	체성외곽			
		치, 응성 제외	응성포함	치, 응성포함	
길이	성문 포함	1,291	1,335	1,354	1,591
(m)	성문 제외	1,279	1,323	1,333	1,570

2,806尺로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문헌에서는 2,876尺으로 기록되어 70尺의 차이를 보인다. 2,000尺이상이 되어 조선시대 읍성의 분류상 中規模에 해당한다.²⁵⁾(표 5) 성내면적은 체성을 포함하여 108,900㎡이다. 1477년에 축성된 창원읍성의 둘레(응성을 포함한 외곽)는 1,809m이며, 1437년에 완성된 응천읍성의 둘레(응성을 포함한 외곽)는 1,207m이다. (대)도호부의 치소인 창원읍성보다는 작지만 같은 縣級의 응천읍성과 비슷한 크기임을 알 수 있다.

[표 5] 문헌별 체성의 규모와 부속시설

文獻資料	체성 규모(尺)			성문	응성	치 (적대)	여장
	둘레	높이	폭				
文宗實錄 (사료.8)	2,806	12	-	3	3	13	3尺 (553)
慶尙道續撰地理誌(사료.9)	2,876	13	1 3尺4	-	-	-	-
新增東國輿地勝覽(사료.10) 朝鮮竇輿勝覽(사료.17)	2,876	13	-	-	-	-	-
東國輿地志(사료.11)	2,876	-	-	-	-	-	-
海東地圖(사료.12)	2,806	3 ²⁶⁾	-	南北	-	-	묘사
大東地志(사료.13)	2,876	-	-	-	18	-	-
南海縣邑誌(사료.14), 晉州鎮管誌(사료.18)	2,876	13	-	南北	-	-	590
增補文獻備考(사료.15), 嶠南誌(사료.18)	2,876	13	-	-	18	-	590
남해고지도	-	-	-	4	北 東 南	-	묘사

25) 주 23의 문헌, p.21.

26) 높이三尺은 다른 문헌을 참고할 때 十尺三의 '一'자가 누락된 것으로 보임?

3-2. 성문과 웅성

문헌과 고지도에서 성문은 2곳(남북) 혹은 3 곳으로 기록되어 있고, 웅성은 3기, 18기로 기록되어 있다. 웅성을 18기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웅성과 치를 합한 기록으로 보인다.²⁷⁾ 성문은 남북 두 곳에 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도로를 남북으로 개설하여 남쪽에 주출구(남문)를 두었다. 현재 도시개발로 인하여 남문과 북문을 확인할 수 없으나 지적원도와 남해군지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북문은 북변리 22번지 일대이며, 남문은 서변리 64번지일대이다. 웅성도 남북문에서만 확인되고 그 형식은 모두 반원형 편문식이며, 개구부가 전부 동쪽을 향해 개방되어 있었다.(표 2, 그림 7, 10)

동문은 지적원도상에서 북변리 90번지와 남변리 341번지 사이지만, 웅성이 남·북문처럼 확인되지 않고 있다. 20세기 초에 제작된 남해고지도에서도 남·북문과 웅성뿐만 아니라 동문에도 웅성을 묘사하고 있고, 文宗實錄(사료.8)에서도 웅성을 3기로 기록하고 있다. 이는 동문도 웅성이 있었으나, 1915년 지적원도 측량 이전에 멸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문은 지적원도에서 서변리 28번지와 34번지 사이에 위치한 한 것으로 추정되나 문헌, 남해고지도, 지적원도 등에서 웅성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원래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성문의 형식과 규모는 남해고지도에서만 확인이 된다. 읍성 정문인 남문은 정면 3칸의 중층 문루, 나머지 성문은 단칸 중층문루로 묘사했다. 남북문은 팔작지붕, 동서문은 맞배집 혹은 우진각으로 그려져 있다. 성문에 대한 기록이 없어 성문의 명칭, 정확한 규모 등은 확인할 수 없었고, 암문이나 水口門 등에 관한 기

록도 보이지 않는다.(그림 7)

사료.8 南海縣邑城，周回二千八百六尺，高十二尺，女牆高三尺，敵臺十三，門三有擁城，女牆五百五十三，城內泉三，小渠一，海子周回三千三十七尺。(文宗實錄：1451(문종 1년 9월 5일))

사료.9 周廻二千八百七十六尺高十三尺廣十三尺四寸有軍倉井一泉五冬夏不渴(慶尙道續撰地理誌)

사료.10 邑城 石築周二千八百七十六尺高十三尺內有井一泉五四時不渴(新增東國輿地勝覽²⁸⁾)

사료.11 城郭 縣城 本朝初縣令任德秀²⁹⁾所築石城周二千八百七十六尺高十三尺內有井一泉五四時不渴(東國輿地志³⁰⁾)

사료.12 城周二千八百六尺高三尺不內有井一泉五四時渴(海東地圖³¹⁾)

사료.13 邑城周二千八百七十六尺甕城十八井一泉五 世祖五年(大東地志³²⁾)

사료.14 邑城周二千八百七十六尺高十三尺雉堞五百九十 ...門有南北城內有井一泉五四池一(南海縣邑誌³³⁾)

사료.15 邑城石築 周二千八百七十六尺高十三尺女堞五百九十甕城十八 內有井一泉五 世祖五年(增補文獻備考³⁴⁾)

사료.16 古蹟 邑城李朝世祖己卯(1459)石築周二千八百七十六尺高十三尺女堞五百九十甕城十八有一井五泉四時不渴(嶺南誌³⁵⁾)

28) 李荇 等受命撰, 『新增東國輿地勝覽 十四冊』, 南海縣 邑城條(<http://www.nl.go.kr>에서 검색하였다)

29) 新增東國輿地勝覽 城郭條 鄭以吾(1347~1434)記에서 任德秀가 남해읍성 이진 이전의 산성을 축조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0) 韓國學韓文獻研究所編, 『國地理叢書 全國地理志參』, 서울亞細亞文化社刊, 서울, p.239, 1983.

31) 서울대학교 규장각소장, 『海東地圖』, pp.1730~1760.

32) 漢陽大學校附設 國學研究院, 『大東地志』, 大提閣, 서울, p.217, 1974.

33) 주 13의 문헌, p.322, 1963.

34) 朴容大 等奉勅篇, 『增補文獻備考 卷之二十七 輿地考』, p.131, 1908.(<http://www.nl.go.kr>에서 검색하였다)

27) 웅성을 18기로 하였는데, 확인된 웅성은 동문을 포함하더라도 3기, 치는 12기가 확인되어 3기가 부족하다. 동문과 남동쪽 우각사이에 치가 1~2기 더 있을 가능성을 포함하더라도 1~2기 더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사료.17 古蹟 邑城石築周二千八百七十六尺高三尺內有一井五泉 世宗九年(1427) (朝鮮震輿勝覽³⁶⁾)

사료.18 城地 縣城 石築周二千八百七十六尺高三尺女堞五百九十有南北門甕城十八內有井一泉五四時不渴我世祖五年己卯(1459)築(晉州鎮管誌南海縣)³⁷⁾

3-3. 雉와 여장, 해자

1) 雉

雉에 대해서는 문종실록(사료.8)에 '敵臺 13기'로 기록되어 있으며, 지적원도에서는 12기는 확인되나 1기는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표 5) 읍성의 동남쪽 우각부와 東門 사이에 雉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1~2기 정도의 치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대개 읍성의 경우 체성이 깎이는 우각부에 치나 포루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적원도를 볼 때 남해읍성 네 우각부에는 치가 시설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치의 규모는(그림 10의 치3) 체성에 약 8.3m(약 18尺) 정도 돌출되었으며, 폭은 교란으로 인해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최소 7.6m 이상으로 추정된다.(그림 10, 14)

2) 여장

여장에 대해서는 문종실록(사료.8)에 높이가 3尺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기수는 문종실록에 553기, 기타 문헌에 590기(사료.18)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모든 남해읍성을 그린 고지도에는 여장이 그려져 있다.

3) 해자

35) 鄭源鎬, 『嶺南誌』, p. 161, 1939. (http://www.nl.go.kr.에서 검색하였다)

36) 李秉延, 『朝鮮震輿勝覽』. 南海郡, p.125, 1922~1937.(http://www.nl.go.kr.에서 검색하였다)

37) 주 16의 문헌의 城池條,

해자는 문종실록(사료.8)에서만 3,037尺으로 기록되어 있고, 남해고지도에서도 북동쪽에만 묘사한 것이 확인된다. 지적원도에서는 앞서 설명한 대로 체성의 동, 서, 북쪽에는 논(25번지, 224번지)이 길과 평형하게 있는데, 이는 해자로 추정된다. 반면 남쪽과 동쪽 남반부에는 해자는 지목이 대지와 밭으로 변해 있어 정확한 추정은 불가능하다. 지적원도에서의 해자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해자 외곽 둘레는 1,475m이며, 중심에서 측정한 둘레는 약 1,417m이다. 해자는 체성외곽에서 대략 11~15m 정도 이격되어 있고, 치와는 접하기도 하고 이격되기도 하였다. 해자의 폭은 5~6m 정도이다.

4. 體城 축조공정 및 기법

4-1. 體城 축조공정³⁸⁾

남해읍성은 2008년과 2009년에 (재)우리문화재연구원이 실시한 동쪽 체성 북쪽 구간의 발굴조사를 통해 체성과 치의 구조 및 축조기법이 확인되었다.(그림 1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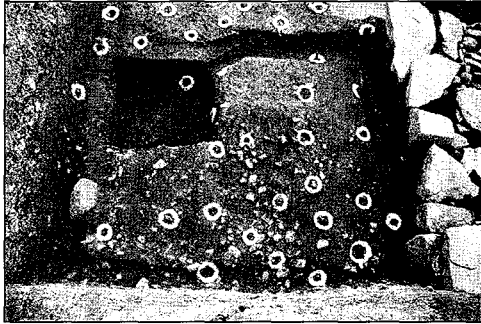
발굴결과를 통해 남해읍성 체성 축조가 '城基造成', '城根造成', '體城(城身)築造', '城根被覆'의 4단계로 이루어졌음이 규명되었다.(그림 19)

1) 城基 造成

城基 造成은 구지표면과 제거하고, 요철이 심한 부분을 절토 및 성도하여 대지를 정지했다. 대지 정지면으로 공정을 마무리 하는 것이 아니라 점성이 많은 실트로 피복했다. 城根 造成에 앞서 동쪽 체성 우각부에는 舊流路가 흘러 지대가 낮고, 연약지³⁹⁾를 이루고 있었다.

38) 주 5-a, 5-b의 문헌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39) 남해읍성의 북동쪽 우각부 근처에는 회색토(가곡토)가 분포하고 있는데, 조사결과 회색토가 조사지역내로 더 확장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農村振興廳 嶺南作物試驗場·農業技術研究院, 『精密土壤圖 南海郡』, 大地用役株式會社, p.5, 1979.



<그림 11> 성근외부 나무말뚝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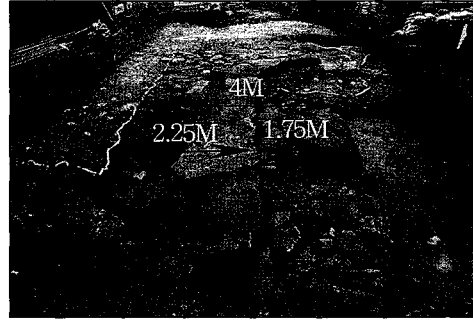
이를 보강하기 위해 城根이 놓일 외부에도 城基 조성층을 굴착하고 직경 약 7~8cm, 길이 65~85cm 정도의 나무말뚝을 박아 지정하였다. 말뚝의 수는 단위면적당 3.85개(3.85/m²)였다. 말뚝을 박아 지정을 한 다음 점성이 많은 흙으로 굴착한 높이와 같게 되메우기를 했다. (그림 11, 15)



<그림 12> 동쪽체성 입면(동에서 서)

2) 城根 造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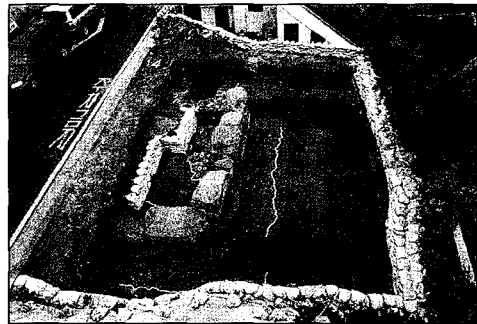
성근조성은 먼저 城基 조성층과 기반층인 단구 역층 및 하천 퇴적층을 성근이 놓일 부분에 ‘ㄱ’자상으로 굴착한다. 이때 부지가 경사져 있어 체성의 지형에 맞게 종횡단면상 계단 모양으로 굴착했다. 그 굴착 깊이는 연약 지반층에는 약 80cm, 단구역층에서는 표토만 굴착했다. 바닥이 전면 확인된 구간에서는 그 굴착 폭은 지대석이 중앙에 놓여 질 수 있도록 1.7m의 배수인 약 4m(8.57尺)로 굴착한 것이 확인 되었다.(그림 13) 굴착한 바닥면에는 지



<그림 13> 동쪽체성 퇴박석과 지대석 전경

반에 관계없이 나무말뚝을 박았는데, 그 크기는 지반에 따라 달랐던 한 것으로 보인다. 즉 상대적으로 지반이 단단한 단구역층에서는 직경 5~9cm의 나무말뚝을 14~15cm 박았고, 지반이 연약한 하천퇴적층에는 더 크고 긴 말뚝을 박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공법은 마찰말뚝 공법으로 말뚝 先端이 지지층에 도달할 수 없을 때 사용되는 공법이다.⁴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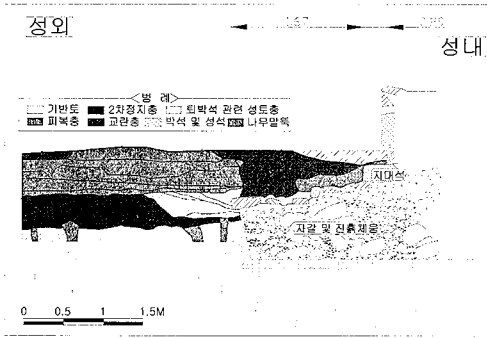
나무말뚝을 박은 후 중력에서 중력에서 대력급의 자갈과 실트, 점토를 섞어 充填했다. 역시 상대적으로 단단한 지반인 단구역층위에는 한 별 정도로 피복했으나 연약한 지반에서는 두껍



<그림 14> 동쪽체성 치 근경(남에서 북)

게(약 95cm) 充填했다. 단단한 지반에는 얇게, 연약지반에는 두껍게 충전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 공법은 굴삭치환공법으로 지반이 연약한 실트 혹은 점토층의 일부 혹은 전부를 굴착하여 제거하고, 양질의 흙 재료로 치환하는 굴삭치환

40) 社団法人 地盤工學會, 『地盤工學用語辭典』, 柱式會社 ディグ. 日本 東京都, p.314, 2006.



<그림 15> 동쪽체성 층위도
공법(掘削置換工法)이다.41)(그림 15)

이 층전층 상부는 중력에서 대력급 크기의 판석을 평평하게 깔아 퇴박석을 완성했다. 이 퇴박석도 구간별로 계단상으로 쌓아 上面이 수평 혹은 약간 경사지게 축조했다. 다른 읍성과 비교하여 상당한 공력이 투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체성 외부의 퇴박석은 지대석에서 약 1.75m(3.75尺) 정도로 일정하게 돌출되어 있지만, 雉부분에서는 1.1~1.4m(2.36~3尺) 정도로 짧고 정연하지 않다.(그림 1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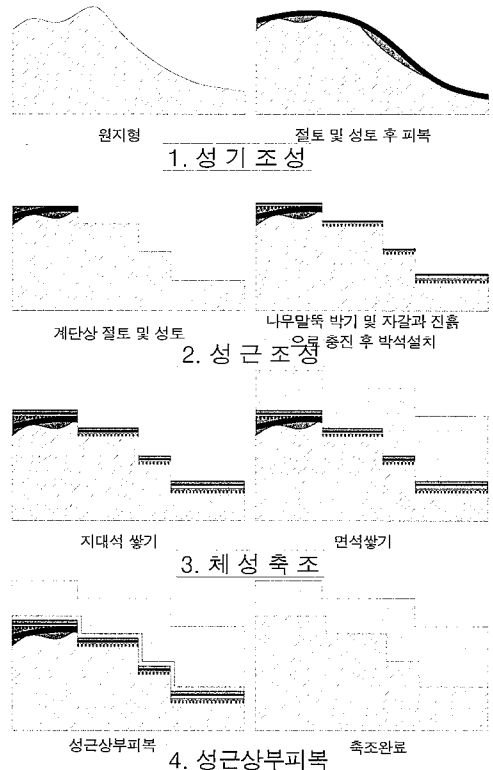


<그림 16> 雉부분 동서 층위사진

3) 體城 築造

체성은 먼저 퇴박석 끝에서 약 1.7m 안쪽에 지대석을 놓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지대석은 거력급이 평평한 돌을 횡·중평직한 형태였다. 체성의 面石은 지대석에서 약 24cm(0.5尺)

정도 물려 쌓았고, 거력급의 돌로 입수적·외수적하여 축조했다. 체성 상부로 갈수록 작은 면석을 사용했으며, 면석의 틈새에는 쪽돌을 끼워 넣어 수평 맞추기 또는 틈새를 메웠다. 체성의 뒷채움은 단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명치 않지만 일부 노출된 곳을 볼 때 흙으로 유사 판축한 것이 확인되어 뒷채움에는 흙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7> 남해읍성 축조모식도

4) 城根 被覆

城根의 피복은 지대석을 쌓거나 혹은 체성을 다 쌓고 나서 城根 조성시 시공한 퇴박석과 지대석 상부를 세력~중력 혼입의 실트~점토로 덮는 공법으로 이루어졌다. 피복층의 두께는 약 50cm이고 범위는 퇴박과 지대석 상부뿐만 아니라 해자 쪽까지 연장되었다.42) 성

42) 통일신라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거창거열성에서도 체성외부를 피복한 층이 확인되고 있다. (재)

41) 주 40의 문헌, p.414

근 피복이 해자까지 폭 넓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그림 17, 18)

4-2. 축조기법 비교고찰

城基와 城根의 조성공정에서 나무말뚝을 사용하여 地定한 것이 확인되었다. 나무말뚝은 일종의 마찰말뚝으로 연약지반에 많이 사용되는 공법이다. 남해읍성의 경우 城基 조성시 城根이 시설되지 않는 부분에도 나무말뚝이 사용했다. 이와 같은 공법은 동래읍성(1446년 축조)에서도 확인되었다. 남해읍성과 동래읍성은 모두 연약지반에 축조된 것이나 동래읍성의 경우 성 내부에 地定시설이 확인되었고, 부분적으로 말뚝 상부에 석재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다른 점이다. 보고서에는 증축으로 인한 시기적 차이로 해석하고 있다.⁴³⁾

경상도 읍성 중 城根 조성시 나무말뚝을 사용한 사례는 밀양읍성(1479), 하동읍성(1417), 동래읍성, 사천읍성(1445), 창원읍성(1476~1477) 등에서도 확인된다. 남해읍성과 같이 평지에 조성된 창원읍성과 동래읍성의 나무말뚝 사용기법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창원읍성의 경우 체성에 전면적인 발굴조사가 실시된 것이 아니고, pit 조사를 통해 나무말뚝이 1기를 확인되었다. 나무말뚝은 성근 전체에 사용되지 않았고, 체성 하부에만 사용되었다. 그 용도도 자연퇴적층인 연약지반을 보강할 목적으로 사용된 마찰말뚝일 가능성이 높다.⁴⁴⁾

밀양읍성과 사천읍성은 산지와 평지를 포함한 평산성으로 발굴조사는 산 능선에 축조된

우리문화재연구원, 『거창 거열성유적 문화재발굴조사 약보고서』, 2009.

43) 福川博物館, 『朝鮮前期 東萊邑城址』, 신흥기획인쇄, 부산, pp.24~31. 2008

44) 창원시·(재)우리문화재연구원, 『昌原邑城』, 용디자인, 부산, p.34, 2007.

부분이 조사 되었다. 밀양읍성의 경우 풍화가 심한 기반암 상부를 제거하여 굴착한 흙으로 유사판축을 한 후에 나무말뚝을 박았다. 그 후 본격적인 체성의 축조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나무말뚝의 용도는 지정 시설인지 체성을 쌓기 위한 결구인지는 단정을 못하고 있다.⁴⁵⁾

사천읍성은 경사지를 계단상으로 절토하여 정지하고 다짐한 다음 직경 5cm 정도의 나무말뚝을 퇴박석 하부까지 촘촘히 박은 경우이다. 사천읍성은 기반층이 견고한 풍화암반층이어서 나무말뚝을 단순히 지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읍성이 경사면에 축조되어 기저부 축조시 석재들이 유실될 가능성이 있어 나무말뚝을 박아 유실을 방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⁴⁶⁾

굴삭 치환공법은 조선시대 읍성에서 많이 사용된 공법으로 평지읍성인 웅천읍성, 동래읍성, 고성읍성⁴⁷⁾(1448)과 평산성인 고현읍성(1450) 등에 사용되었다.

웅천읍성은 하천퇴적층의 생토를 다진 다음 점토로 다지고 그 위에 사람머리 크기의 할석을 이용하여 층위별로 쌓고 판석으로 마무리한 경우이다.⁴⁸⁾ 남해읍성의 경우 확인한 층위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웅천읍성에서는 층위별로 쌓은 것이 다르다. 그리고 동래읍성은 풍화암반층을 L자 모양으로 약 70cm 정도 굴착하여 굴착면에 5~6단을 쌓고 안쪽에 잡석을 채워 넣은 후.⁴⁹⁾ 상부에 판석을 올려 마무리한 경우

45) 밀양시·밀양대학교박물관, 『密陽邑城』, 생각그리기, 대구, p.96, 2002

46) 財團法人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泗川市, 『泗川邑城址』, 세종문화사, 부산, p.73, 2008.

47) 東亞大學校博物館, 『固城邑城址』, 世宗文化社, 부산, 2006.

48) 慶南發展硏究院 歷史文化센터, 「진해 웅천읍성 복원사업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1차 지도위원회 자료집」, p.12, 2008.

이다. 고현읍성은 평지부에 위치하는 동벽에서 생토층을 사선으로 50cm 정도 굴착하여 벽면을 따라 자연석을 횡평적하여 뒤편은 막채움하고 상부는 판석으로 마감하였다.⁵⁰⁾ 전술한바와 같이 동래읍성과 고현읍성에 보이는 굴삭 치환공법이 남해읍성과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남해읍성에서는 발굴조사를 통해 퇴박석의 기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⁵¹⁾ 퇴박석의 용도에 대해 다양한 의견⁵²⁾이 있으나 남해읍성에서 확인된 퇴박석은 점성이 많은 실트로 덮여있어 지표에 노출되지 않았으며⁵³⁾, 지대석 상부까지도 피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보아 퇴박석은 地定施設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퇴박석은 진흙과 자갈로 충전한 치환층과 분리하여 체성 축조를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 상부의 하중을 효율적으로 지반에 전달하려는 목적, 우수에 의한 기저부 유실방지 등 여러 목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남해읍성의 체성 축조기법과 공정을 경상도 지역에 축조된 읍성과 비교한 결과 유사한 기법 사용되었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남해읍성에서는 城基의 조성공정과 城根피복(退薄石상부)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체성부에 나무말

뚝을 사용한 것과 퇴박석을 1.75m정도로 넓게 부설한 것으로 보아 성벽 축조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표 6] 남해읍성의 용척비교

척도명	체성둘레 (cm)				
	2,806尺	2,876尺	3,037尺 (해자)		
黃鐘尺	34.72	974.24	998.55	1,054.45	
	34.48	967.51	991.64	1,047.16	
周尺	20.81	583.92	598.5	632.00	
	20.62	578.60	593.03	626.23	
營造尺	31.24	876.59	898.46	948.76	
	30.80	364.25	885.81	935.40	
造禮器尺 (禮器尺)	28.64	803.64	823.69	869.80	
	28.63	803.36	823.40	869.49	
橫尺	26.40	740.78	759.26	801.77	
布帛尺	五禮	44.75	1,255.69	1,287.01	1,359.10
	遵守	46.73	1,311.24	1,343.96	1,419.19
	經國大典	46.80	1,297.49	1,345.97	1,421.32
		46.66	1,309.23	1,341.94	1,417.06
	銅四角周	49.24	1,381.67	1,413.14	1,495.42
戶曹	48.91	1,372.41	1,406.65	1,458.40	
一等量田尺	99.36	2,788.04	2,857.59	3,017.56	
黃鐘律管	31.25	876.88	898.75	949.06	

법례: 백색(투명)-신영훈안⁵⁴⁾.

회색해칭-이종봉안⁵⁵⁾. 단위: m

5. 用尺과 築城計劃

5-1. 용척 고찰

용척을 고찰하기 위해 지적원도에 확인된 체성과 해자의 둘레를 측정하고, 이를 문헌기록에 수록한 척도를 비교했다.(표 6) 남해읍성의 체성 둘레는 웅성과 치를 제외한 중심을 측정시 약 1,291m, 雉와 웅성을 제외한 외곽을 측정시 약 1,335m로 나타났다. 웅성(치 제외)을 포함한 체성의 외곽길이는 약 1,354m, 웅성과 체성을 다 포함한 외곽 길이는 약 1,591m로 었다. 지적원도 실측치와 표 6의 환

54) 申榮勳, 『韓國古建築 斷章/上』, 文化教育出版社, 서울, p.83, 1975.

55) 李宗峯, 『韓國中世度量衡制研究』, 혜안, 서울, p.110,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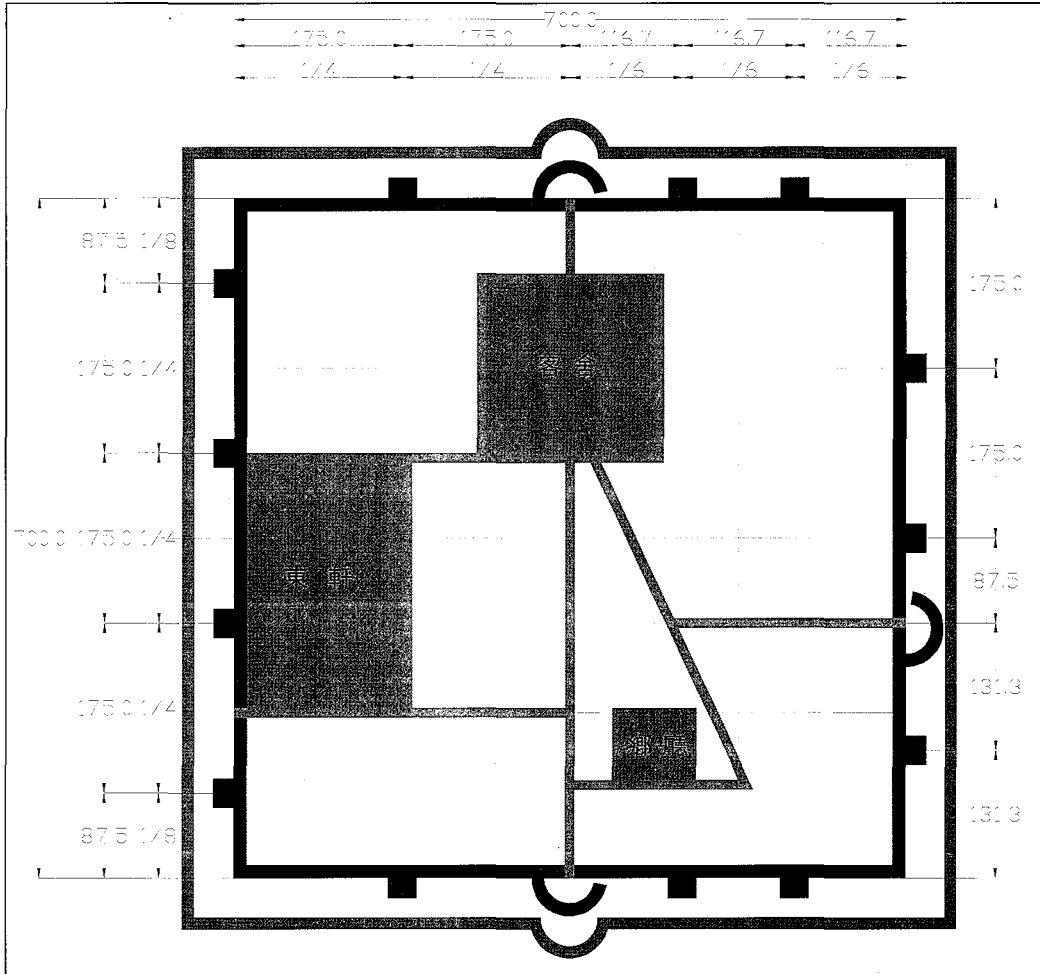
49) 주 43의 문헌, p.24.

50)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古縣邑城』, 錦昌印刷社, 경남, pp. 33~37, 2006.

51) 수원화성에서도 퇴박석위에 흙으로 덮어 성벽을 타고온 물이 기초로 스미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담장에서도 사용되었고, 고구려시대 백암성, 백제의 왕궁리 성곽에서 확인되고 있다.(김왕직, 「수원 화성의 기초공법 고찰」, 『한국건축역사학회 2007춘계학술발표대회』, p.243, 2007. 퇴박석이 체성하부에도 시설되어 퇴박석이란 용어를 지칭해야 할지도 의문이다.)

52) 퇴박석을 기저부를 보강하는 역할과 동시에 통행로서의 기능도 고려되고, 또한 미적인 요소도 고려한 것으로 보고있다.(주 46의 문헌, p.82)

53) 사천읍성의 경우에도 퇴박석 상부를 피복한 것이 확인되었다.(주 46의 문헌, p.29)



<그림 18> 남해읍성 축성계획 추정도(단위: 布帛尺)

산값을 비교해볼 때 문헌기록상의 체성 둘레에 치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를 포함한 체성 둘레가 문종실록의 해자의 둘레보다 더 길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헌에 보이는 남해읍성의 체성 길이는 읍성과 체성의 외곽 길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표 6에서 주척과 영조척, 포백척을 비롯한 조선시대에 사용된 여러 가지 자(尺)로 환산한 길이와 지적원도 실측치(1,354m)를 비교한 결과 布帛尺으로 환산한 약 1,342m(표 6)가 가장 가까웠다. 포백척의 여러 척도 중에서 尊守, 經國大典, 戶曹가 정한 포백척에 가장 가

까웠다.⁵⁶⁾ 이것으로 보아 남해읍성 축성시 포백척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5-2. 축성계획과 分數

축성계획은 먼저 읍성의 형태를 한 변 길이가 700尺(포백척)의 정방형으로 계획했다. 읍성을 한 변이 700尺(포백척)인 정방형으로 계획한 후 각 변을 8등분하여 城內 토지를 64개坊(블록: 87.5×87.5尺)으로 분할하고 거기에 주

56) 최원석도 남해읍성에 둘레를 측정하는 척도는 포백척이라 하였다(최원석, 『경상도 邑治 경관의 역사지리학적 복원에 관한 연구: 南海邑을 사례로』, 문화역사지리 제16권 제3호, p.32, 2004.)

요 公廡인 객사, 동헌, 향청 등을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18)

公廡의 위계와 向 등을 고려하여 먼저 위계가 가장 높은 객사를 성내 중앙부 북쪽 4개(2×2) 坊(블록)에 배치했다. 수령이 정사를 보는 동헌은 중심에 위치한 객사의 남서쪽에 위치하며, 부지가 좁아 서측 체성에 접해 있다. 동헌의 대지는 서측 체성에 붙여 6개(3×2) 坊(블록)으로 설정했다. 향청은 객사의 정면에 위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남북축선에서 남동쪽으로 치우쳐 있다. 객사와 동헌의 외곽 坊의 경계에는 도로를 개설했다.

성문은 남북으로 개설된 주도로에 맞추어 남북 체성의 중심에 두었으며, 서문과 동문은 동헌과 향청의 위치 때문에 중앙부에서 남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같은 읍성내 坊 구획은 체성에 돌출된 치의 위치와도 무관하지 않다. 치의 간격은 대개 175尺으로 성벽 한 변 길이인 700尺의 1/4에 해당하며, 分數로 볼 때 웅성이 있는 경우 그것을 하나의 치로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수가 철저히 지켜진 것은 아니며, 위치에 따라 치의 간격이 116.7尺, 131.3尺인 것도 있고, 특히 방어에 취약한 체성 우각부의 치 간격은 87.5尺 또는 116.7尺였다.

지적원도상에는 동문과 남동쪽 우각부 사이에 雉가 보이지 않으나, 치의 간격상 1기가 더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어 향청 동측에 치 1기를 삽입하였다.(그림.18) 특히 서쪽 체성의 치는 坊의 구획과 일치되어 있다. 坊의 구획과 일치하지 않는 치는 지형적 특성이 반영되었거나 초축 이후 수차 수리 및 개축하면서 조정된 결과로 보이며, 장차 발굴조사 등을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남해읍성의 체성은 폭 13尺 4寸, 높이 13尺으로 중단면상 정방형에 가깝다. 이를 환산하면 체성의 폭이 6.25m, 높이가 약 6.07m이다.

그 위에 문헌에 보이는 여장(높이 3尺)이 추가 되면 체성의 전체 높이는 7.47m정도였다.

앞에서 고찰한바와 같이 평지에 위치하는 남해읍성은 축성계획에 따라 한 변이 700尺의 읍성으로 조성했다. 체성의 한 변 길이인 700尺의 1/4에 해당하는 175尺의 간격으로 성내 토지를 田자형으로 분할하고 거기에 주요 공해를 비롯 치, 성문 등을 배치했으며, 주요 도로도 이에 따라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위에서 남해읍성의 연혁 및 공간구성, 축성 계획과 분수, 公廡, 축조기법 등에 대해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해는 남해안 해상교통로의 결절점에 위치하고 토지 면적이 넓다. 倭와 가까워 麗末 鮮初에는 倭寇의 침입이 잦았다. 이런 지정학적 이유로 지금의 남해읍성은 고현면 화금현산성(현 고현산성)에 있던 남해읍치를 1439년(세종 21)에 지금의 위치로 옮기면서 축성한 것이다. 그 후 임진왜란때 체성 일부가 파괴되어 수축했으며, 1757년에 縣令 趙世述이 개축한 바 있다. 근현대 이후 근대화와 도시개발로 크게 훼손되어 보존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

남해읍성은 연해 읍성으로 내륙읍성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그중 하나가 船所이다. 남해읍성에서 북동쪽 약 2km지점에 있는 소규모 항구인 船所는 행정과 군사면에서 남해읍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船所는 남해읍성과 가장 가까운 항구로, 兵船과 戰船을 두어 남해읍성을 방어하는 水軍기지이자 남해읍성과 내륙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다. 船所는 조선시대 연해와 도서지역 읍성의 필수적인 시설로 읍성의 입지 선정시 중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남해읍성은 자연발생적인 도시에 건립된 읍성이 아니라 단구면의 평지에 계획적으로 조성된 평지성이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듯 남해읍성을 한 변 길이가 700척(포백척)인 정방형으로 계획하고 그에 맞추어 읍성의 공간과 시설을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체성의 한 변 길이인 700尺을 8등분한 87.5尺을 기준단위로 1개 坊의 크기를 설정하고 주요 공해인 객사와 동헌, 향청의 대지면적은 坊의 배수가 되도록 계획했다. 읍성내 도로망은 객사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확산되는 방사형이며, 각 도로는 T자형의 삼교차로형식으로 교차한다. 이는 조선시대 읍성의 일반적인 가로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공해의 배치계획과 체성에 부속된 치, 성문, 옹성 등의 시설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했다. 남해읍성은 평지에 위치하는 입지조건과 방리제에 준한 方格의 도시구성으로 공해, 성문 등의 각종 시설을 정연하게 배치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구릉지에 위치하는 읍성처럼 시설 배치에서 유기적인 특성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셋째, 읍성내 坊의 구획은 체성에 부속된 雉의 위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치의 간격은 대개 175尺(포백척)으로 성벽 한 변 길이(700尺)의 1/4에 해당한다. 分數上 옹성은 하나의 치로 간주되었으며, 치의 간격은 175尺(포백척)을 기준으로 이보다 좁은 116.7尺, 131.3尺인 것도 있다. 체성의 네 모퉁이에서 雉까지의 간격은 87.5尺 또는 116.7尺으로 일반적인 175尺(포백척)보다 좁게 나타났다. 읍성의 서측 체성의 雉 위치는 坊의 분할과 부합했다. 坊의 구획과 일치하지 않는 치는 지형적 특성이 반영되었거나 초축 이후 수차 수리 및 개축하면서 조정된 결과로 보인다. 남해읍성의 체성은 폭 13尺 4寸(6.25m), 높이 13尺(6.07m)으로 종단면이 정방형에 가까운 형태였

다. 높이 3尺의 여장을 더하면 체성의 총 높이는 7.47m정도였다.

넷째, 1439년에 쌓은 남해읍성의 체성은 다음과 같은 4단계 공정으로 쌓았다. 체성의 축조는 城基 조성, 城根 조성, 體城 축조, 城根 피복의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城根 상부에서 해자에 이르기까지 점토로 피복한 층이 확인되었다. 성근 하부에는 나무말뚝을 마찰말뚝으로 사용했으며, 연약지반에는 城根 외부에도 나무말뚝을 박아 地定했다. 말뚝공법과 함께 城根 조성시 지반을 굴착하고 자갈과 모래를 채워 넣는 削土置換工法이 함께 사용되었으며, 그 깊이는 지반에 따라 달랐다.

<참고 문헌>

1. 南海邑誌 編纂委員會, 『慶尙南道 南海郡 南海邑誌』, 씨티폴린, 2008.
2.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 南海郡, 『文化遺蹟分布地圖-南海郡-』, 나래중합인쇄사, 2004.
3. 최원석, 『경상도 邑治 경관의 역사지리학적 복원에 관한 연구: 南海邑을 사례로』, 문화역사지리 제16권 제3호, 2004.
4. (재)우리문화재연구원, 『남해 도시계획도로 건설구간내 유적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약보고서』, 2008.
5. (재)우리문화재연구원, 『남해읍성 주변 건물신축부지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2009.
6. 慶南文化財研究院, 南海大局山城(南門 및 蓮池), 世宗文化社, 2000.
7. 新增東國輿地勝覽
8. 韓國學韓文獻研究所編, 『國地理叢書 全國地理志 參』, 서울亞細亞文化社刊, 1983.
9. 서울대학교 규장각소장, 『海東地圖』, 1730~1760,
10. 한양대학교부설 국학연구원, 『大東地

- 志』, 大堤閣, 1974,
11. 韓國學資料院, 『慶尙南道 與誌集成』, 「南海縣邑誌」, 1963,
 12. 朴容大 等奉勅篇, 『增補文獻備考 卷之二十七 輿地考』, 1908.
 13. 鄭源鎬, 『嶠南誌』, 1939.
 14. 李秉延, 『朝鮮輿勝覽』, 1922~1937.
 15. 경상대학교 도서관소장, 『晉州鎭管誌』, B15BB-진77,
 16. 農村振興廳 嶺南作物試驗 · 場農業技術研究院, 『精密土壤圖 南海郡』, 1979.
 17. 양재혁, 「해수면 변동에 따른 남해안의 지형발달과정과 해안기후단구」, 『한국지형학회지』, 2008.
 18. 崔鍾圭, 『勒島遺跡의 構造』, 「勒島 貝塚V」, 서경문화사, 2006.
 19. 白寅吉, 「朝鮮時代 邑城의 立地에 따른 特性에 관한 연구」, 서울대석논, 1989.
 20. 신영훈, 『韓國古建築 斷章/上』, 동산문화사, 1975.
 21. 李宗峯, 『韓國中世度量衡制研究』, 혜안, 2001.
 22. 김동욱, 『조선시대 건축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23. 社団法人 地盤工學會, 『地盤工學用語辭典』, ディグ, 2006.
 24. 김왕직, 「수원 화성의 기초공법 고찰」, 『한국건축역사학회2007춘계학술발표대회』, 2007.
 25. (재)우리문화재연구원, 『거창 거열성유적 문화재발굴조사 약보고서』, 2009.
 26. 福川博物館, 『朝鮮前期 東萊邑城址』, 신흥기획인쇄, 2008.
 27. 창원시·(재)우리문화재연구원, 『昌原邑城』, 용디자인, 2007.
 28. 밀양시·밀양대학교박물관, 『密陽邑城』, 생각그리기, 2002.
 29. 財團法人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泗川市, 『泗川邑城址』, 세종문화사, 2008.
 30.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진해 응천읍성 복원사업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1차 지도위원회 자료집」, 2008.
 31.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古縣邑城』, 錦昌印刷社,, 2006.
 32. 이호열, 日帝下 大邱邑城의 철거와 都市空間構造의 變化, 密陽産業大學校 建築科學技術研究所, 建築科學技術, 1999.
 33. 金善範, 韓三建, 1998, 朝鮮시대 邑城圍郭의 用尺에 관한 研究.
 34.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35. 東亞大學校博物館, 『固城邑城址』, 世宗文化社, 2006.
- 접수(2009. 8. 18)
수정(1차:2009. 10. 16, 2차:2009. 10. 25)
게재확정(2009. 10. 28)

A Study on Techniques of the construction and Space Structure of Nam-hea city walls

Kwon, Soon-Kang

(The Woori Research Institute for Cultural Properties, Team manager)

Lee, Ho-Yeol

(Prof,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history, space structures, blueprint, and techniques of the construction of Nam-hea city walls.

Nam-hea city walls were relocated in 1439 from Whagumhun-Sansung(火金峴山城) to the present site, nearby Nam-hea Um.(南海邑) The city walls were rebuilt after they were demolished during Japanese invasion on Korea in 1592 and their reconstruction was also done in 1757. At present, the city walls only partially remained due to the urbanization of the areas around them. A plane form of the City wall is a square, and the circumference is approximately 1.3km. According to the literature, the circumference of the castle walls is 2,876尺, the height is 13尺, and the width is 13尺 4寸. Hang-Kyo(郷校). SaGikDan(社稷壇), YoeDan(厲壇), SunSo(船所) which is a harbor, as well as government and public offices such as Kaek-Sa(客舍) and Dong-Hun(東軒) existed inside the castle walls. Inside the castle walls were one well, five springs, one ditch, and one pond, and in the castle walls, four castle gates, three curved castle walls, and 590 battlements existed.

The main government offices inside castle walls were composed of Kaek-Sa, Dong-Hun, and Hang-Chung(鄉廳) their arrangements were as follows. Kaek-Sa was situated toward North. Dong-Hun was situated in the center of the west castle walls. The main roads were constructed to connect the North and South castle gate, and subsidiary roads were constructed to connect the East and West castle gate. The measurement used in the blueprint for castle wall was Pobaek-scale(布帛尺:1尺=46.66cm), and one side of it was 700尺.

South and North gate were constructed in the center of South and North castle wall, and curved castle walls was situated there. One bastion was in the west of curved castle walls and two bastions were in the east of curved castle walls. The east gate was located in the five eighths of in the east castle wall. Two bastions were situated in the north, one bastion in the south, and four bastions in the west castle wall. The castle walls were constructed in the following order: construction of castle field, construction of castle foundation, construction of castle wall, and cover the castle foundation. The techniques used in the construction of the castle walls include timber pile(friction pile), replacement method by excavation.

Keywords : Joseon dynasty, Nam-hea city walls, Space structures, Techniques of the construction. A land registration map
